

# 중구소식

2004. 8월 vol.40



구 캐릭터 '월드'

### 구정목표

세계로 웅비하는 미래 지향적인 국제관광도시 건설

발행인 | 중구청장 김홍섭    편집 | 문화공보실  
주소 | (우)400-701 인천광역시 중구 중구청길 100(관동1가 9)  
전화 | 760-7122    팩스 | 760-7129    월간 | 비매품(통권 40호)



구마크



꽃 철쭉



새 갈매기



나무 해송

# 제7회 용유을왕리 해변축제 '성료'

지난달 30~31일 용유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화려한 '해변의 축제'로 뜨겁게 달아 올랐다.  
 4만 여명의 피서객과 주민들을 즐겁게 했던 '제7회 용유을왕리해변축제'는  
 천혜의 해양자원이 을왕리 해수욕장을 빛낸 뜻깊은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열전가수왕 코너에선 동네의 내로라 하는 '카수'들이 목청을 가다듬었고,  
 씨름왕 선발대회엔 수많은 '천하장사'들이 나와 변강쇠 못지 않은 힘을 자랑했다.  
 에콰도르와 러시아 댄스팀은 이국의 정취를 자아냈고  
 락 콘서트는 젊은이들을 열광시키기에 충분했다.  
 연인들은 밤하늘로 치솟는 불꽃들을 바라보며 사랑을 속삭였고  
 그들의 사랑을 불꽃에 담아 검푸른 밤하늘로 쏘아 올리고 있었다.



- 구정시책**
- ▣ 주민기대에 부응하는 자치행정 실현
  - ▣ 봉사과 나눔의 복지사회 실현
  - ▣ 환경 친화적인 도시기반조성
  - ▣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육성
  - ▣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품격있는 관광도시 조성

## 주요기사 안내

- 인천역 '최첨단 역사'로 새롭게 태어난다 . . . 2
- '신포시장 새단장' 2단계 착수 . . . 3
- 학생교육문화회관 오는 9월 개관 예정 . . . 4
- 우리고장 명물 - 흥예문 . . . 6
- 우리동네이야기 - 울목동 . . . 7
- 테마여행 - 월미산 . . . 8
- 포토구정 . . . 9
- 대체의학 - 은행잎, 솔잎의 효능 . . . 10
- 제127·128회 임시회 개최 및 의사일정 . . . 11
- 보건·봉사 . . . 15

# 인천역 '최첨단 역사' 로 새롭게 태어난다

인천시 호텔 등 편의시설 두루 갖춘 '복합역사' 로 재개발키로 준공 104년만에 인천시 지난 6월 철도청과 건립협약서 체결해



중구의 상징적 역(驛)인 '인천역'이 최고급 호텔과 편의시설을 두루 갖춘 복합역사로 부활한다. 인천역이 준공된 지 무려 104년 만의 일이다.

인천시는 지난달 중구 북성동 1-3 일원 인천역사 4천300평의 부지에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복합숙박센터를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천복합역사 건립' 협약서를 철도청과 체결했다.

이 사업은 처음 중구 항동3가 2-7 일원 1만9천평의 옛 인천경찰청 부지를 사들여 민간 자본을 유치할 계획이 잡혀 있었다. 그러나 사업대상 부지가 인천역사로 변경됨에 따라 인천경찰청 부지 매입은 불투명한 상태이다.

협약서에 따르면 시는 1단계로 오는 2008년까지 철도청이 보유하고 있는 인천역사 부지 4천300평에 객실 300실을 갖춘 중저가형 1급 호텔과 역무시설, 비즈니스룸, 회의실, 미디어센터, 공연장, 스포츠시설, 쇼핑몰 등을 갖춘 복합역사를 짓기로 하였다.

복합역사는 지하 2층에 지상 12층, 연면적 6천500평 규모이며 역내 시설 및 승객편의 시설은 주로 지하층에 둘 방침이다.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시는 인천역 철로부지 2만6천여평 및 인근의 사유지 4만5천평 등 7만1천평을 추가로 매입, 복합역사를 중심으로 인천역 주변지역 종합개발을 연이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철도청과 함께 양기관 대표자를 포함한 12명 내외의 '인천역 개발을 위한 공동협의회(T/F 팀)'를 구성, 오는 9월께 사업 타당성을 위한 조사용역을 발주할 방침이다.

1천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비 조달은 철도청이 부지를, 시가 공사비를 부담하는 50:50의 공동 출자방식으로 하고, 용역후 사업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일괄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및 동북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저가 형태의 '복합숙박센터' 건립사업도 인천역사(驛舍)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쪽으로 최종 가닥이 잡혔다.

이에 따라 국내 최초로 개통된 경인선의 시발역으로

지난 1900년부터 한 세기가 넘도록 인천항의 산업자재 및 선진문물을 실어나르던 '부두역' 역할을 했던 인천역사가 '관광역'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됐다.

### ▶추진과정 및 배경

앞서 언급한 대로 '복합숙박센터' 건립은 400여억원을 들여 인천 중구 항동3가 2-7 일원 1만9천여평의 옛 인천경찰청 부지를 매입, 추진키로 한 사업이었다.

사업 대상부지가 인천역사 부지로 변경된 것은 옛 인천시경 부지가 차이나타운과 거리가 멀어 중국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략을 세워야 하는 등 사업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 여기에 최근 인천경찰청과 부지 매입 협상이 난항을 빚었던 것도 한 몫 거들었다.

시는 우선 인천역사에 국내·외국인을 위한 중저가형 복합숙박센터를 신축할 경우 안상수 시장이 임기 후반기 시정아젠다로 제시한 도심재생사업이 한 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역사 부근 북성동 일원은 60, 70년대 활황기를 맞았던 인천항만 경제의 후광을 업고 인천도심권으로 각광을 받았던 곳이다. 그러나 80년대 들어 주안 및 구월동 등 부심권이 주요 도심권으로 급성장하면서 도심슬럼화가 가속화돼 변두리 부도심으로 전략, 재개발 욕구가 강하게 일어왔다.

시는 이 지역이 전철역과 시내 주요 버스노선이 경유하고 있는데다 인근에 '차이나 타운'이란 관광지가 있는 만큼 인천역사를 현대적 시설로 리모델링할 경우 관광시설 확보 및 도심재생사업에 적절하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가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비난여론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지난 5월부터 이번 사업추진을 위해 철도청과 틀밀 협상을 벌여온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시와 철도청은 기존 인천역사의 역무시설은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1급 호텔과 쇼핑시설 및 공연장, 식당가, 스포츠시설 등 부대시설을 갖춘 방침이다. 특히 인천역사는 인천역을 시발로 수원을 이을 수인선 건설이 계



획대 있어 향후 관광교통 요충지로 새롭게 부상할 여건을 갖추고 있다. 그런 만큼 시는 복합역사 건립이 완료된 후 추가로 철로부지 및 사유지 7만1천여평에 대한 중장기 종합개발 계획을 마련, 월미도의 관광 인프라와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사업비 부담은 철도청이 부지를 제공 공동개발키로 한 만큼 경찰청 부지를 매입해 추진하는 것과 비교해 별 차이가 없으며 경찰청 부지는 향후 용도를 마련, 현금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해안동 “아름다워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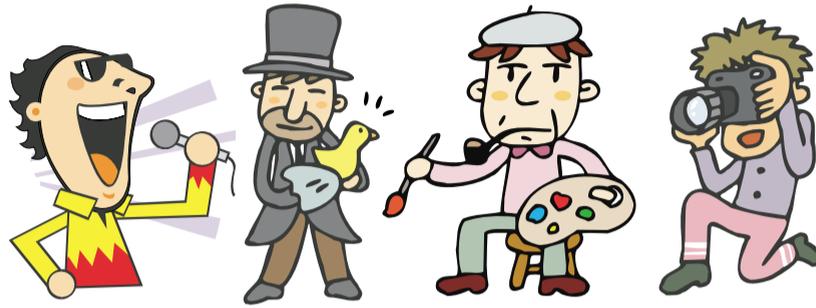
창고건물 등 ‘거리박물관’, 미술공간인 ‘예촌’ 등으로 꾸며져

‘강화도’ 섬 전체가 역사유적지라면, ‘중구’는 구 전체가 살아있는 박물관이다. 거리 곳곳에 역사 유물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듯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중구, 그 가운데서도 관동·중앙동·해안동 일대가 ‘거리박물관’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중구는 근대건축물이 밀도있게 들어서 있는 이 일대를 차이나타운, 신포 문화의 거리와 연계, 개발하기 위해 ‘가로환경정비사업’에 착수했다고 최근 밝혔다.

시비와 국비 등 대략 29억여원이 들어갈 이 사업은 연말까지 관동교회 앞~신한은행 간 폭 7~12m, 길이 670m에 이르는 구간에 대해 작업을 완료한다.

역사문화의 거리로 조성될 이곳은 ‘어



울마당’ (과거와 현재), ‘옛마당’ (과거), ‘빛의 마당’ (현재와 미래)으로 나뉘어진다. 이 세 곳의 테마에 썬터, 광장, 상징물이 들어서고 우표, 화폐, 중구의 인물들이 소개된다.

거리박물관에선 조명 효과를 맘껏 살린 빛축제, 근대거리사진전, 근대영화촬영축제, 벚꽃축제 등이 펼쳐진다.

이와 함께 해안동 1가 10의4 일대 도

로 120m 구간에 오밀조밀 모여있는 근대건축물 17개동은 미술문화공간 ‘예촌’으로 꾸며진다. 또 해안동 2가 7 주변에 대해서도 같은 목적의 문화 공간이 들어선다.

이곳의 8개 동은 일제시대 일본인들이 인천항을 통해 수탈해 갈 쌀의 저장창고로 사용됐던 건물들이 있다.

인천시는 해안동에 있는 창고 건물들

을 내년까지 90억 여원을 들여 사들인 뒤 리모델링 작업을 통해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전시·교육 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창작공간, 강좌, 토론장, 세미나실, 갤러리 등 미술인들의 전용공간을 만들어 간다는 구상이다.

내년 부터 2008년까지 해안동 2가 7 일대 창고들을 사들여 공연장, 특산물 전시판매장, 고전 음악 감상실, 지역 홍보관으로 만들 예정이다.

아울러 건물 외부에는 조각공원과 미니 광장, 야외무대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시와 구가 함께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그 어느 곳보다도 뛰어난 관광 중구를 지향하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신포시장 새단장’ 2단계 착수

넓은 건물 등 3구간 리모델링

말끔하고 쾌적한 모습으로 새단장을 한 신포시장이 2단계 사업에 돌입했다.

중구는 신포시장의 일부 넓은 건축물과 시설물을 새롭게 단장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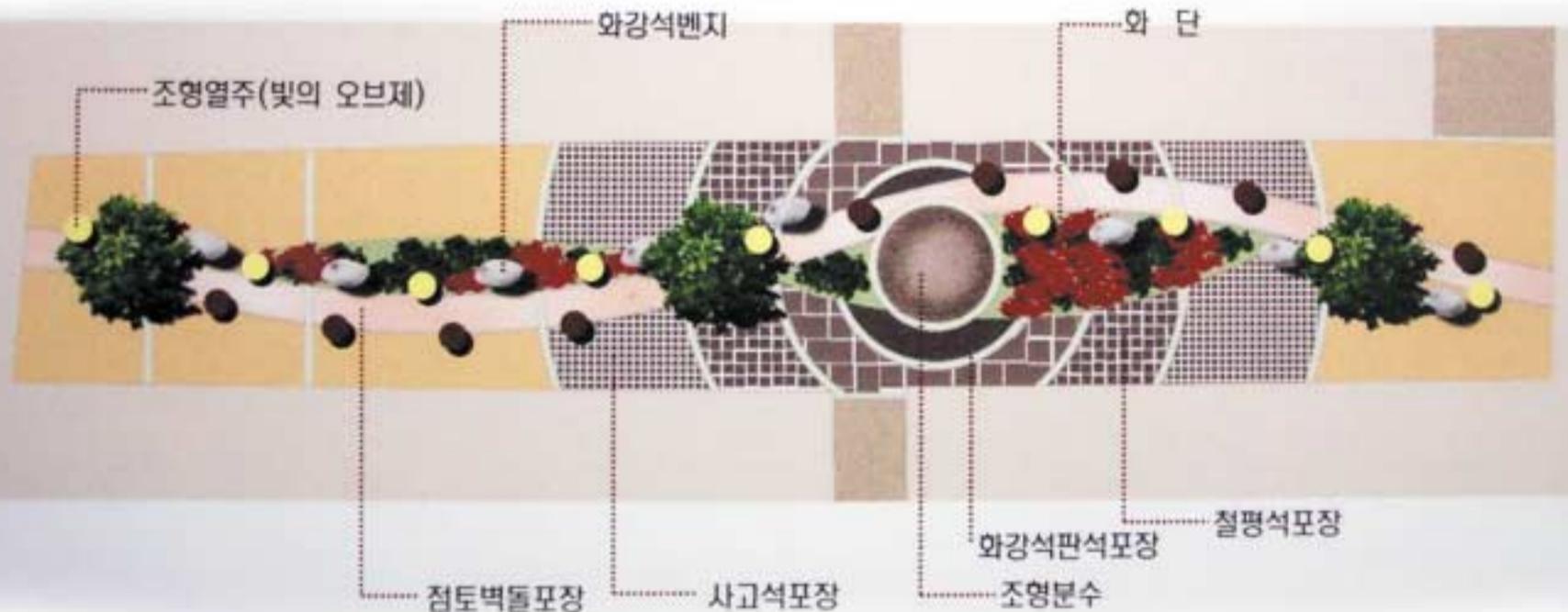
구는 지난 6일 신포시장 활성화 추진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용역 보고회를 갖고 25억여원을 들여 내년까지 일부 넓은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환경개선 2단계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포동 3번지 일원인 화선횃집 부근

과 신포동 9번지 일원인 경남횃집 부근 등 신포시장을 크게 세 구간으로 나눠 개발할 예정이다.

구는 259.7m 구간에 대해 건물외벽을 리모델링하고 아케이드를 설치하며 판매·편의시설과 조형물을 설치해 현대시장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구는 지난해까지 화강석 바닥포장, 지붕 아케이드 설치, 공중화장실 신축 등 1단계 사업을 마무리 한 바 있다.



# 올 가을, 인천청소년들 '최고의 선물' 받으세요



## 인천시학생교육문화회관 오는 9월 개관 예정 중구, 개관에 맞춰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 박차

빛나는 백마같은 모습의 '인천시학생 교육문화회관'(중구 인현동 5번지)이 9월에 개관, 학생들을 만난다. 이로서 갈 곳이 마땅치 않았던 청소년들은 자신들만의 문화공간에서 맘껏 질풍노도의 감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청소년들 교육 문화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인천시학생교육문화회관은 건물 연면적 7천720평, 대지 연면적 3천716평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졌다.

회관은 각 층 별로 특색있는 시설을 갖추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1층에는 초등학교를 위한 만화방과 애니메이션 체험교실, 유아볼플장 등이 마련됐다. 또 도예실, 조연분장실, 합창연습실이 리허설룸, 사물놀이실 등이 들어선다. 이와 함께 퍼즐실, 영상음악실, 디스크장, 인터넷카페, 관현악실, 보컬연습실, 소공연장, 키드랜드 등 문화시설은 물론 청소년 상담실과 식당 등 편의시설도 자리한다.

청소년들이 맘껏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대공연장은 2층에 마련됐다. 2층에는 또 생활체육실, 댄스연습장, 탁구장, 당구장, 스넥바가 있으며 회관을 실질적으로 운

영할 총무부, 운영부, 방재센터, 전산실과 함께 관장실을 만날 수 있다.

3층의 시설도 눈길이 가는 것들 투성이다. 이곳엔 청소년들이 밥을 굶으면서까지 달려드는 만화방 두 개와 애니메이션 체험실이 청소년들을 기다린다. 또 보드게임방, 도미노실, 실내구기장, 영화감상실 등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 만한 코너가 곳곳에 마련됐다. 우주가상공간, 세미나실, 동아리방, 어린이 방송국은 4층에서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달에는 전체를 개방하지 않고 부분만을 개방할 예정이다. 현재 계획

으로는 디스크장, 소공연장, 대공연장, 댄스연습장, 실내구기장, 영화감상실, 음악감상실이 부분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300억여원이 투입된 인천시학생교육문화회관은 지난 2000년 건립계획안을 확정했으며 2001년 착공에 들어간 이래 3년여 만에 개관이란 결실을 보게 됐다.

회관 관계자들은 최신시설과 함께 다채롭고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명실공히 인천 지역 청소년들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회관으로 만들어 갈 구상을 세우고 있다.

중구는 회관 개관에 맞춰 회관 주변인 내동, 전동, 일원동 일대를 '청소년 문화의 거리'로 조성 중이다. 중구는 최근까지 이 일대 전기·통신의 지중화 공사를 완료했으며 오는 10월까지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구는 회관 개관에 맞춰 문화의 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침체한 지역 상권을 되살리는 전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상권의 기능제고를 위해 보·차도 정비와 주변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상권 활성화를 위해 특화거리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시설물을 적정하게 설치하고 난이도에 맞춰 효율적인 사업을 위한 용역설계를 추진 중이기도 하다.

인천시학생교육문화회관 개관과 중구의 청소년 문화의 거리조성 사업이 동인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 중 구 의 옛 풍 물

## 조선상업은행 인천지점(朝鮮商業銀行 仁川支店)



조선상업은행 인천지점은 1920년에 점포로 신축한 서구식 벽돌건물이다.

당시 우체국과 나란히 향동 일각을 차지하고 있던 이 신식건물은 인천항의 자랑이었다. 최근에 유형문화재로 지정하려던 의견도 있었으나 노후가 심하다 해서 보류했다는데 얼마 전에 기어코 조양상선을 마지막 주인으로 헐리고 말았다.

조선상업은행은 구한말에 창립한 대한제일은행과 한성공동창고주식회사가 합병하여 1912년에 설립된 일반은행이었다.

다음해에 인천창고주식회사를 흡수하여 인천지점은 대형창고를 가진 은행으로서 미국 집산지인 인천항에서 독보적인 활동을 했다.

10년 후에 조선미곡창고주식회사가 창고업무를 인계하기까지 황금시대는 계속되었다.

해방 후 한국상업은행 인천지점으로 업무를 계속하다가 50년대 후반에 경동 신점포로 이전했다.

이 자리에 미군상대인 카바레 인터내셔널클럽이 생겨 호황을 누렸는데 인천에 처음으로 슬롯머신과 스트립쇼를 소개했다는 화제를 남기고 있다.

20년에 태어났다 90년에 세상을 떠난 칠순노인의 생애처럼 이 건물도 적지않은 우여곡절을 겪고 말없이 자취를 감추었다.

현재 이 건물 자리에는 '동인천등기소'가 자리잡고 있다.

# 인천공항 ‘실적도 국제적’

지난 7월, 운항·여객·화물 등 전년 동기 20% 증가  
1970년 비해선 항공 여객·화물 실적은 54배 늘어



인천국제공항의 항공기 운항과 여객, 화물처리 등이 지난해 같은 기간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7월 한달간 인천공항의 항공기 운항은 모두 1만3천2백30회(하루 평균 427회)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9% 증가했다.

여객처리도 7월 한 달 간 2백25만5천3백94회(하루 평균 7만2천7백55명)로 무려 26.6%가 늘어났다. 환승객은 25만5천6백63명(하루 평균 8천2백44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8.3% 늘었고 전체여객대비 환승률은 11.4%를 기록했다.

화물처리량은 18만3천1백33t(하루 평균 5천9백8t)으로 전년보다 19%로 늘었으며 환적화물은 8만7천7백11t(하루 평균 2천8백29t)으로 47.9%를 나타냈으나 지

난해 48.7%보다 0.8%로 감소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7월은 본격적인 휴가철과 지난해와 같은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등 항공 약재가 없어 공항 운영실적이 크게 늘었다”며 “이 상태라면 올 항공기 운항은 지난해보다 10.5%, 여객은 11.2%, 화물은 20%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은 480회의 항공기와 9만1천782명의 여객이 인천공항을 이용, 올들어 가장 많은 항공기와 여객이 이용한 날로 꼽혔다. 특히 이날은 인천공항이 개항 4년여만에 1일 공항이용여객 9만 명을 돌파한 날로 기록됐다. 지난해는 432회의 항공기와 8만3천547명의 여

객이 이용한 10월5일이 최고 이용객의 날로 꼽혔었다.

한편, 최근 한국항공진흥협회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03년까지 국내선·국제선의 여객·화물 항공수송 실적은 1970년을 기준으로 2003년의 수송실적과 비교했을 때 국내선 여객은 23배, 국제선 여객은 54배로 늘어났다.

수송실적은 1970년 당시 여객이 국내선 91만7천명·국제선 39만8천명, 화물은 국내선 5천t·국제선 2만6천t 이던 것이 2003년에는 여객은 국내선 2천138만명·국제선 2천245만9천명, 화물은 국내선 42만3천t·국제선 220만9천t으로 각각 급증했다.

## 공항에 대규모 근로자 캠프 단지 들어서 2단계 건설사업 지원 위해 삼목·신불도 등에 10만8천평 규모

인천공항 2단계 건설사업의 지원을 위한 대규모 근로자 캠프단지가 조성된다.

캠프단지는 1단계때 조성된 삼목, 신불도 외에 인천공항 국제업무지역(IBC)에도 들어설 예정이어서 이 곳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공항 2단계 사업의 성공적인 건설과 원활한 업무체계를 위해 올 10월부터 입주할 10만8천여평의 대규모 근로자 캠프단지 3곳을 조성한다.

캠프단지는 현재 2단계 부지조성 공사를 위해 입주한 삼목캠프 단지 잔여부지 4만4천여평과 1단계 캠프단지인 신불도 4만6천여평 등이다. 여기에 국제업무지역 활성화를 위해 이 곳에도 1만6천여평이 조성된다.

캠프단지에는 근로자를 위한 사무실과 숙소, 상가, 체육 및 휴게시설, 식당, 주차장, 자재창고 등이 들어서며 공항 공사는 각종 설비, 전기, 통신 등 건축공사비로 11억7천만 원을 배정, 이달말 공사를 시작한다.

각 캠프단지는 기능별로 삼목은 2단계 부지조성업체와 토목 등 현장공사 위주로 배치되며 신불도는 전력시설, 항공동화, 항행시설, 옥외플랜트, 중수처리시설, 급유시설, 토목, 건축 보세장치장 등 업체가 들어선다.

국제업무지역에는 탑승동과 관련된 건축, 기계, 전기통신, IAT업체 등이다.

공항공사는 3곳의 캠프단지가 조성되면 하루 7천여명이 이곳을 이용하고 국제업무지역도 하루 평균 1천200여명의 유동인구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다이나믹 코리아로 불러주세요”

인천공항, 대한항공 항공기에 국가이미지 알리기 나서



인천공항과 대한항공이 한국의 위상과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다이나믹코리아(Dynamic Korea)홍보에 팔을 걷었다.

대한항공은 아테네 올림픽이 열리는 8월 한달 간 역동적 한국의 이미지를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현재 ‘Dynamic Korea’ 캠페인 로고를 부착한 항공기 5편을 유럽노선에 투입, 운항하고 있다.

항공기 동체에는 ‘KOREA’의 O자에 태극 문양이 들어간 ‘다이나믹 코리아’ 영문 로고가 그려졌으며 기내에서는 한국의 홍보 영상물도 상영한다.

인천공항도 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월드컵 기간 중 온 국민의 가슴에 감동을 주었던 붉은 악마의 태극기 응원모습과 ‘Dynamic Korea’ 로고를 부착한 광고판을 8곳에 세웠다.

이는 한국 브랜드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2004년 아테네 올림픽과 2005년 APEC 정상회의, 2006년 독일 월드컵 등에서 한국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것이다.

# '미학'과 '실용성' 겸비한 100년 명물 홍예문



한 세기 동안 인천항과 동인천을 소통시키는 요긴한 통로

중구엔 격변의 현대사를 지내온 역사적 명소와 명물이 풍성하다. 수십, 수백 년의 세월을 건너오면서도 아름다운 본 모습을 잃지 않고 '고색창연'한 모습으로 빛나는 곳들. 이 역사적 명소·명물은 지금까지도 중구민과 시민들 가슴 속 깊숙히 자리하며 과거와 현재, 미래를 오가는 상상의 날개를 달아준다. 이번 호부터 중구 명소·명물의 어제와 오늘을 소개한다. 그 첫번째는 홍예문이다. <편집자주>

홍예문(중구 송학동 2가 20)은 100년 가까이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엄연히 2004년 사람들의 현실에 존재하고 있다. 자유공원이 있는 응봉산 산자락 중턱에 자리한 홍예문은 항만 쪽과 동인천 시내를 잇는 중구의 관문이기도 하다.

이 곳에는 하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사람들과 차가 지나다닌다. 이 길을 지나면 답동성당 쪽으로 에둘러가지 않고도 쉽게 동구 쪽으로 빠질 수 있다.

이 길을 지날 때면 많은 사람들은 낭만적 상상에 잠기곤 한다. 차 두 대가 간신히 지날 수 있는 폭으로 운전자들로서는 짜증이 날 수도 있겠지만 짜증을 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 이유는 홍예문의 아름다움 때문이다.

푸른 이끼가 드문드문 끼어있고 무성한 담쟁이 덩쿨로 옷을 입은 홍예문을 보고 감탄하지 않는다면 그는 이미 사람의 심성을 잃어버린 각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임에 틀림없다.

홍예문을 지나면서 사람들은 저마다 사색에 잠긴다. '올 가을엔 내가 기다리던 백마의 왕자가 나타날거야' '삶은 무엇이고 나는 누구란 말인가' 란 다소 희망적이고 철학적인 생각에서부터 '아침엔 엄마에게 내가 잘못된 거 같아' '어제 술 먹고 늦게 들어간 주제에 왜 내가 화를 냈담' '출근하는 남편에게 좀 더 잘해주는 건데' 등등 작은 생활의 뉘우침까지 홍예문은 사람들의 굳었던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준다.

홍예문은 한마디로 '미학과 실용성'을 한꺼번에 갖춘 명물이다. 이 때문에 한국영화 사상 처음으로 관객 1천만 시대를 돌파한 '실미도'를 비롯해 수많은 영화의 단골무대가 되기도 했다.

홍예문으로는 사람과 차만 오가는 것이 아니다. 인천항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닷바람이 홍예문을 오가며 질주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바람은 항구의 소식을 동인천 사람들에게 전해주며 동서를 잇는 전령사 역할을 하고 있다.

윗머리가 무지개처럼 생긴 문이라는 뜻의 홍예문은 인천시내 남북간 교통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철도 건설을 담당

하고 있던 일본 공병대가 1906년 착공해 1908년에 준공했다.

화강석과 벽돌을 섞어 만든 홍예문은 높이 13m, 폭 6.7m의 아치 구조물로 준공 당시로서는 매우 놀라운 건축물이었다. 홍예문은 한 때 인천의 모습을 갈라놓기도 했다. 북쪽의 송현동, 화수동의 허름한 집들과 남쪽 송학동, 중앙동 쪽의 이국풍 저택들이 대비를 이룬 것이다.

처음에는 혈문이라고 불렸으며 각국 지계 형성 당시 조선 정부의 계획에 반대하던 일본인들은 조선과 만주 침략 계획과 인천으로 몰려든 일본인들로 인해 거주 공간 확장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지계의 확장을 피하게 됐다.

그 당시엔 교통사정이 매우 열악했으므로 일본 지계나 항구에서 만석동으로 가려면 서북 해안선을 따라 가야 했다. 따라서 일본인들은 비교적 짧은 구간인 현 송학동 마루터를 깎아 만석동으로 통하는 길을 만들고 동시에 화강석 홍예문을 쌓아 각국 지계와 측후소 쪽으로 진출

을 피했다.

홍예문은 이처럼 무거운 현대사의 흔적을 안고 있지만 중구민들의 가슴엔 아끼고 보듬어야 할 사랑스러운 존재임에 틀림없다.

사시 사철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열려 있는 홍예문. 오늘 홍예문 길을 혼자서라

도 천천히 거닌다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랑이 이루어지거나 돈이 들어오거나, 즉 '복'을 맞을 거란 얘기다. 단 소원을 빌기 전 반드시 주문을 외워야 한다.

"홍예문이어, 언제까지고 영원할지이다"...



우리동네이야기 **율목동**

# 동북아의 관문 '인천' 인천의 관문 '율목동'

## 과거 모든 물류, 인파 율목동 앞 '황골고개' 지나 율목공원, 시립도서관 등 역사 오랜 명물 '눈길'



'황골고개'를 가진 율목동은 과거 '인천의 관문'이었다. 경인국도와 경인철도를 통해 모든 물자와 사람들이 지나갔고 인산인해의 풍경을 이루는 곳이었다. 지금은 '대나무' 상가와 '주방기구' 상가들이 과거의 명맥을 잇고 있으며 동네는 다가구세대 밀집촌으로 변했다.

율목동에 기독교병원, 정보산업고교, 시립도서관 등이 상징물로 자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자랑거리는 '율목공원' (중구 율목동 244의1)이다. '도심 속의 작은 숲'인 율목공원은 공원이라고 하기엔 아까울만큼 조경과 시설이 뛰어나다. 동화 속에나 나올법한 산책로와 쾌적한 체육, 놀이 시설, 3천8백여평에 이르는 널찍한 면적...

이쯤 되다보니 어린이 공원이면서도 이 곳엔 어른 애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휴식을 취하며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연간 이용객만 1만2천명에 이를 정도라니.

율목공원은 1944년 공원으로 결정된 뒤, 이 곳엔 1962년 우리의 전통예술인 국악의 발전과 국악인을 양성하기 위한 '경아대'가 세워졌다. 1969년엔 청소년들을 보살피기 위한 BBS회관이 건립되기도 했다.

이 곳에 산책로, 놀이시설, 체육시설이 본격적으로 들어서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96년부터이다.

이 곳의 시설은 크게 유희·교양·휴양·편의·운동 등 5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유희시설로는 조합놀이대 3개소, 롤러미끄럼대 1개소, 줄오르기 1개소, 모래사장 등이 들어서 있으며 교양시설로는 경아대와 BBS회관이 자리한다.

육각정자, 팔각정자가 시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누구라도 맘껏 끼를 발산할 수 있는 화려한 원형무대가 마련돼 있기도 하다.

또 '몸 튼튼 마음 튼튼'을 시행할 수 있는 운동시설과 음수대, 화장실 등 편의시설 등이 고루 갖춰져 가족 단위의 산책코스로도 손색이 없다.

### 심영섭 율목동 주민자치센터 위원장 인터뷰

## “인천의 관문 명성 맥 잇고 있지요” 33년간 한 자리 지키며 마을 발전 주도한 터줏대감

심영섭(57) 율목동 주민자치위원장의 고향은 충남 서산이다. 그는 그러나 초등학교 6학년 때 인천으로 이사와 40여년이 넘는 세월을 '잔 물'을 먹고 지내왔다. 특히, 지금의 자리(중구 유동 2번지)에서 33년간 주방기구 전문점인 '세기냉동 주방설비'를 운영하며 누구보다도 율목동의 정서와 인천의 마음을 잘 읽고 있다.

“6천명이 채 안되는 동네입니다. 마을 주민들간 친밀한 공동체를 가꿔 나가기에 어려움이 없지요.”

심 위원장은 다른 그 어느 지역보다 잘 이뤄지고 있는 율목동 주민들간 화합을 자랑한다. 물론 그 중심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자치위원들 간 회의, 간담회를 통해 동네 현안을 해결합니다. 또 다른 단체들에 계신 분들과도 종종 모임을 갖

습니다.”

그는 “마을의 번영을 위해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25명의 위원들이 머리를 맞댄다”며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바르게 살기 협의회 등 과도 많은 논의를 한다”고 말한다. 또 얼마 전 경동·동인천·하인천 파출소를 합해 '하인천 지구대'로 개편한 경찰과도 마을의 치안을 함께 고민하는 중이라고 덧붙인다.

올 들어 율목동 주민자치센터에선 작은 경사가 나기도 했다. 새로 지은 노인정 2층으로 체력단련실 등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일부를 옮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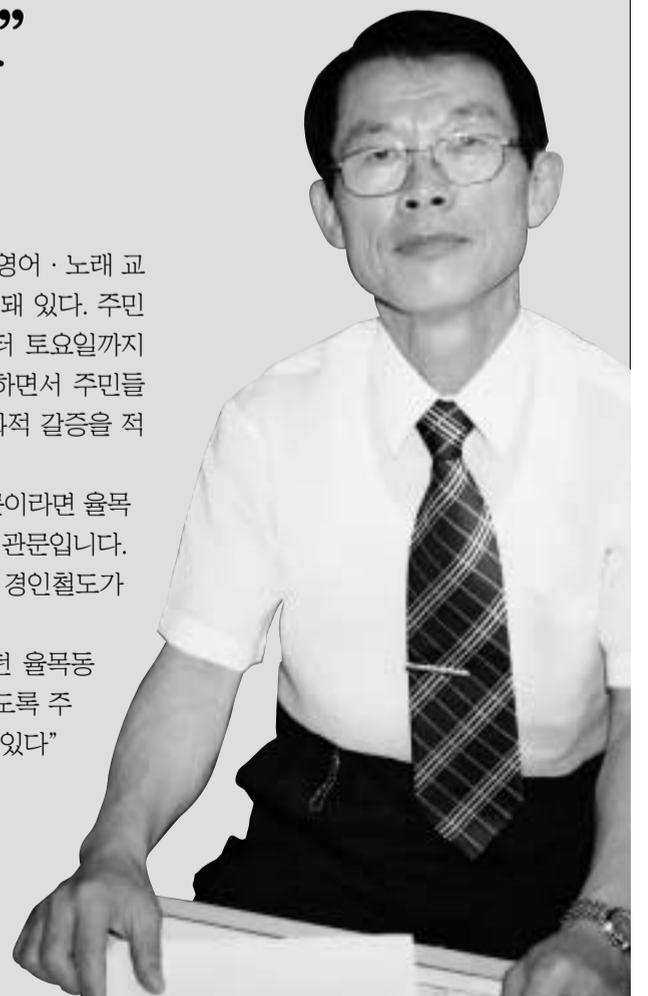
“올 초 까지 낡은 동사무소 건물에서 자치센터를 운영하느라 알게 모르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강체 조교실과 체력단련실을 경로당 2층으로 옮긴 이후 주민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서는 영어·노래 교실과 인터넷부스가 마련돼 있다. 주민자치센터에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취미생활을 돕고 문화적 감증을 적셔주고 있다.

“인천이 동북아의 관문이라면 율목동은 인천의, 또 중구의 관문입니다. 과거 경인국도가 지나고 경인철도가 지난 곳 아니겠어요?”

심 위원장은 “화려했던 율목동의 모습을 되살릴 수 있도록 주민들이 더불어 노력하고 있다”고 시원하게 웃었다.





# ‘가을의 결실’ 준비하는 산책길

‘금강산’ 처럼 4계절 다른 모습, 8월은 마지막 녹음 흘뿌리는 계절  
환삼덩굴, 짚레나무, 청설모, 황조롱이 등 희귀동식물 수백종 즐비



황조롱이



아치

월미산까지만 해도 매미들의 울음소리로 가득했던 월미공원에 가을 풀벌레 소리가 잔잔히 울려 퍼지고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름을 달리 하는 ‘금강산’ 처럼, 월미산도 계절마다 그 빛깔이 다르다. 아직까지는 녹음이 우거져 여름의 끝자락에 걸터있는 월미공원은 머잖아 하나 둘 초록빛 옷을 벗고 울긋불긋한 가을옷으로 갈아입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원 앞 광장은 한창 공사중이지만 산으로 오르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조깅을 하거나 삼삼오오 짝을 지어 산책을 즐긴다. 이따금 혜택받은 ‘견공’들의 모습도 보인다. 월미산은 중구민, 인천시민들은 물론 모든 만물의 평화로운 휴식처로 가을의 문턱에서도 아름다운 미소를 보내주고 있다.

월미공원의 산책로는 그 완만한 경사가 일단 사람들에게 부담감을 덜어준다. 그렇게 길지도 않은 거리에 가파르지 않은 산책로로 가꿔져 있어 노인들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도 어려운 산책코스가 아니다. 특히 정상까지 오르는게 힘겨운 사람들은 산 중턱에서 돌아나오면 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맹꽁이



살모사

월미공원의 산책로는 무엇보다 천천히 걸으며 광대한 인천 앞바다와 거대한 인천항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데 장점이 있다. 산책로 한 편으론 바다와 항구가 보이고 다른 한 편은 울창한 숲이 맑은 산소를 선물한다.

월미산에는 온갖 희귀한 동식물이 가득하다. 환삼덩굴, 박주가리, 꼭두서니, 사위질빵, 으아리, 메꽃, 팽이밥, 매듭풀 등 이름조차 처음 들어본 식물들이 즐비하다. 가중나무, 조팝나무, 뱃나무, 복사나무, 팔배나무, 짚레나무 등 희귀한 나무 수십종도 시민들을 반겨준다. 여기에다 간버섯, 구름버섯, 넓은주름긴뿌리버섯, 밀버섯 등 버섯 등도 산책로를 찾는 사람들에게 ‘낯설은 반가움’을 선물한다.

특히 청설모, 붉은머리오목눈이, 청딱따구리, 황조롱이, 삻꾸기와 잠자리, 애매미 등 곤충이 아이들을 즐겁게 해준다.

이런 희귀 동식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기 위해 서부공원관리사업소는 산 자락을 따라 생태탐방로를 조성해 놓고 있다. 아이들의 생태공부와 자연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주기 위해 ‘월미산지기’들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

직장인, 자영업자, 교사, 주부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자연사랑을 몸소 실천중인 월미산지기 회원들은 주말 등을 이용해 생태탐방 학습을 시켜주고 있다. 몇 시간을 청소년들과 함께 산책하며 일일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이와 함께 회원들간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월미산을 보다 잘 가꾸기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산책로가 아담하다보니 넉넉 잡고 30~40분이면 정상에 도착한다. 월미산 꼭대기에선 영종도, 무의도, 팔미도 등 인천의 아름다운 인근해 섬이 한 눈에

들어온다. 이 곳에 서면 세계 최고 봉을 오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파노라마가 광활하게 펼쳐진다.

월미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사람은 산책을 마치고 사업소 사무실을 찾으면 된다. 사무실 안에는 생태도서실이 마련돼 있는데 조경식물, 한국생태학회지, 대한식물도감 등 750여권에 이르는 전문도서를 구비해 놓고 있다.

월미공원은 한편, 지난 6월11일 ‘월미공원조성공사’ 착공식을 가졌다. 이 공원은 오는 2007년까지 163억원의 예산을 들여 새롭게 단장하며, 향후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진 완벽한 시민들의 공원으로 다시 태어날 예정이다.



개망초



영경귀



참나리



## 토종보리촌

고기,회는 요즘 세상에서 더 이상 귀한 음식이 아니다. 사람들은 ‘별미’를 원한다. 요즘 별미라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 추수할 때 저 멀리서 아낙네가 논일을 하는 농부를 위해 소쿠리에 이고 오는 ‘보리밥’은 어떨까. 햇 열무김치에 고추장을 넣고 쓱쓱 비벼먹는 보리밥. 여기에서 퓌퓌 추를 된장에 푹 찍어 한 입 베어먹는 그 맛을 어디다 비할 수 있을까. 이 맛갈스런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 있으니 이름하여 ‘토종보리촌’(인천시 중구 경동 141의 19)이다. 참외전 거리 안쪽 골목에 자리한 토종보리촌은 불경기인 요즘에도 손님들의 발길로 예약을 하지 않으면 수십분을 기다려야 할만큼 최상의 인기도를 달리고 있다.

“저희 식당은 완전한 건강식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종보리촌 대표 박영일씨는 유독 ‘건강식’을 강조한다. 그도 그럴 것이 박 대표는 지금의 식당자리에서 30여년간 ‘명성식품’이란 이름으로 여러 식당에 재료를 공급해 왔다. 좋은 재료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것이다.

“재료가 안 좋으면 제 맛이 날 수 없는 게 당연하지요.”

그래서인가. 이 집의 보리밥은 꿀떡꿀떡 잘도 넘어간다. 보리밥이면서도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고 씹는 맛도 부드럽다. 말하자면 겉보기엔 보리인데 맛은 햇쌀밥같은, 보리밥과 쌀밥이 어우러진 느낌이다. 강낭콩을 넣어 지어낸 보리밥에 상추, 부추, 콩나물, 햇열무김치 등 8~10종류의 야채를 넣고 고추장을 얹은 뒤 참기름을 살짝 뿌려 비벼먹는 맛은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으며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이다. 보리밥에는 직접 띄워 만든 청국장과 갈아서 끓여낸 돼비치지개가 함께 나온다. 청국장은 냄새가 나지 않으며 돼비치 역시 부드럽고 담백한 맛으로 손님들의 혀를 감탄시킨다. 보리밥이 건강에 좋은 것은 그의 아내가 증명했다.

“당뇨가 있었는데 식당을 시작하며 꾸준히 보리밥을 먹고 말끔히 나았어요. 의사가 스스로 병을 고친 대단한 분이라고 놀라더군요. 사실은 보리밥 덕택인데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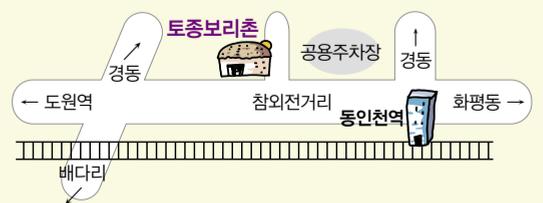
이 집의 또다른 자랑거리는 피자 같은 ‘녹두전’과 ‘파전’이다. 피자를 좋아하는 아이들도 토종보리촌의 ‘전’을 맛보면 ‘피자보다 더 맛있다’며 전화주문이 올 정도이다.

‘백문이 불여일미’라. 한번 맛을 보면 훌쩍 반할 토종보리촌의 보리밥과 전을 맛보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리라.



## 기름 잘잘 흐르는 구수한 보리밥

‘이 시대 최고 건강식’ 자신, 맛도 최상급 불황 불구, 예약해야 자리잡을 정도 ‘인기’





# 포토구경



##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창립총회

지난 8월17일 구청 상황실에서 김홍섭 중구청장을 비롯 10개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창립총회를 열었다.



## 송월동 주민설명회

지난 8월4일 송월동사무소에서 지역주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월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를 개최하였다.

## 모범음식점 영업주 교육

김홍섭중구청장은 지난 7월30일 중구청회의실에서 모범음식점 영업주 128명에 대하여 위생시설 개선 및 서비스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지원 물품을 배부하였다.



## 신포시장 활성화 추진 보고회

지난 7월29일 구청회의실에서 김홍섭중구청장, 구의원 및 신포시장변영회원 등 관계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포시장 활성화 추진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용역 보고회' 를 실시하였다.



## 어머니포순이 봉사단 발대식

한국자유총연맹인천중구지부는 지난 7월29일 舊 인천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김홍섭중구청장을 비롯한 김기성구의회의장, 엄재성자유총연맹중구지부장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 발대식' 을 가졌다.



**\*\* 대체의학 \*\***

**은행잎의 효능**

사람에게 암수 성(性)의 구별이 있듯이 은행나무도 암수의 구별이 있어, 자시(子時 : 밤 11시~1시)에 암수가 교류하여 함께 꽃을 피운다. 은행나무의 궁합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나무끼리 맺어진다. 은행나무는 선사시대의 화석에서 발견되는 은행잎과 지금의 은행잎과의 사이에 조금도 다른 점이 발견되지 않을 만큼 어떤 생물보다도 질긴 생명력을 지녔다.

그래서 그런지 은행나무에는 버락도 안 떨어진다. 그 뿐 아니라 은행나무는 불에도 잘 안타고 잘 부러지지도 않는다. 벌레도 먹지 않는다. 즉 천적이 없다. 그러므로 은행나무는 자체에 살충성분을 풍부히 갖고 있으며 생명력이 강해 기혈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며 피를 맑게 해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학적으로 조명을 해보면 카드뮴이나 수은 등은 중독성이며, 카드뮴이나 수은에 중독된 땅에다 은행 나무를 심었더니 5년도 안되어서 그 땅의 카드뮴과 수은을 중화시켜 놓았다는 분석결과가 있다.

은행나무와 자작나무는 중금속을 정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은행나무는 유독 다른 나무의 10배 이상의 중화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은행나무에는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발암물질을 중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토양이 다른 나라보다 뛰어난 약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은행나무도 한국산이 가장 약효가 좋다는 것은 이미 전 세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현실이다. 은행나무로 가로수를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이렇게 약성분이 좋은 은행나무를 약재로 잘 육성하여 약품개발을 하면 우리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솔잎의 효능**



솔잎에서는 피톤치드라는 물질이 많이 나오는데 피톤치드는 지방을 분해하고 노화물질을 파괴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삼림욕 중에서 소나무 삼림욕이 제일 좋은 이유가 바로 피톤치드가 풍부하게 나오기 때문이다. 또 소나무 기운을 받고 자라나는 것 중에 송이버섯 외에 복령이 있다. 하얀 것은 백복령이라 하고, 붉은 것은 적복령이라고 한다. 복령은 소나무 뿌리 부근에서 자라는 균인데 이 복령은 약방의 감초처럼 많이 쓰이고 있다.

약으로 인한 독성을 제거하는데 있어서 탁월한 효력이 있다. 다음으로 소나무 열매인 송과가 있는데 우리 몸 상단에 송과체라는 세포가 있고 그 곳에 시상세포가 들어 있다.

이 세포는 가만히 앉아서 천리를 내다볼 수 있는 세포라고도 한다. 절에 가면 부처님 이마에 다이아몬드를 박아 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상단의 송과체가 도통을 해서 영안이 열리므로 만상을 비취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솔방울을 건강과 질병 치료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소나무에 기생하는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사는데 바로 이 송충이가 대단한 약이다. 또 솔잎혹파리는 소나무의 천적으로서 소나무 속에 파고 들어가 진액을 다 빨아먹어 소나무를 결국 말려 죽인다. 그런데 이 혹파리가 천하명약이다. 혹파리 애벌레를 가지고 인류의 질병을 치료하는 신선약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자료제공 : 심원기(자연치유요법 전문가)

**이 달의 수산물**

**장어**



장어의 종류에는 여름철의 보양식으로 데침회가 일품인 갯장어, 서민들의 안주로 유명한 먹장어(곰장어), 뛰어난 영양·강장 식품인 뱀장어(민물장어)와 잘게 썰어 물기를 없애고 먹는 '아나고'라고 불리우는 붕장어가 있다. 여름부터 초가을까지가 제철이다.

**추천도서**

**다빈치코드 1, 2**



2003년 3월 출간된 이후 미국에서 약 7백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 이 소설은 루브르 박물관장 소니에르의 살해 사건으로 시작한다. 주인공 로버트 랭던과 소피 누브는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자신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거대한 음모에 휘말리고, 2천 년 동안 단단하게 짜맞춰진 비밀을 파헤치는 최전선에 서게 되는데... 그들은 이 숨막히는 여정에서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미술작품에 숨겨진 단서들을 숨가쁘게 추적하며 독자를 사건 깊숙이 끌어들이는다.

**이달의 영어회화표현**

**Take a tip from me.**  
제 말을 들어주세요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충돌할 때는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을 따라야 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소견이 옳다고 여겨지면 당당하게 Take a tip from me.라고 얘기하자. ... 어떤 미국인이 Take a tip from me.라고 말했다니 한국인이 놀라서 No, no.를 외치며 거절했다는 얘기도 있듯이 여기서 tip은 '덤으로 주는'팁이 아니라 '충고(a piece of advice), 암시(a useful hint or idea)를 의미한다. Take a tip from me.를 Take my tip. 또는 Let me give you a tip.으로 바꾸어 말할 수도 있다. Take my tip. You know the store across the street? They are selling strawberries at one fifty a basket right now. (제 말을 들으세요. 지금 길 건너편 상점에서 딸기를 한 바구니에 1달러 50센트에 팔고 있어요.)

- A: I just can't decide.  
정말 결정을 못하겠군.
- B: Take a tip from me.  
The red car is better than the black one.  
제 말을 들으세요. 빨간 차가 검은 것 보다 더 나아요.
- A: Are you sure? I'm too old to drive a red car.  
정말인가? 빨간 차를 끌고 다니기에는 너무 늙었잖아.
- B: No way! You're not too old.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그렇게 늙지 않았어요.
- <More Tips>**
- No way!는 '절대불가, 무슨 소리!' 의 뜻으로 쓰인다.

**이달의 중국어회화표현**

**中国话难不难?**  
중국어는 어렵습니까?

- A: 你会说中国话吗?  
(니 후이 쉬 쩡 귀 화 마)  
당신은 중국말을 할 줄 압니까?
- B: 我会说一点?  
(위 후이 쉬 이 디안)  
저는 조금 할 줄 압니다.
- A: 中国话难不难?  
(쨥 귀 화 난 부 난)  
중국어는 어렵습니까?
- B: 不大难?  
(부 타이 난)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 <More Tips>**
- 一点(儿) : 조금
  - 会 : ~할 줄 안다
  - 难 : 어렵다

■자료제공 : T.I.G program 개발진(514-0038)

**이달의 일본어회화표현**

**体(からだ) にいいもの**  
몸에 좋은 것

무더운 여름날, 한국인은 삼계탕을 주로 먹는데 비해 일본인은 뱀장어를 먹는다. 삼계탕은 일본인의 입에도 잘 맞는다. 다만 그 양인 '~인분'이라는 말을 처음에 이해하지 못하는 일본인이 많다고 한다.

- 森 : どうしたの, 顔色(かおいろ)が悪(わる)いみたい?  
모리 :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은 것 같아.
- 後輩 : ちょっと疲(つか)れたみたい?  
후배 : 조금 지친 것 같아요.
- 森 : じゃ、いまからサムゲタンを食(た)べにいきましょう?  
모리 : 그럼, 지금부터 삼계탕 먹으로 가지.
- 後輩 : わあ,すごい, これ一人分(ひとりぶん)ですか?  
와, 대단해, 이게 1인분이예요?
- 森 : そう. 高麗人參(こうらいにんじん)も入(はい)ってるし, 体(からだ) にいいわ?  
모리 : 그래. 고려인삼도 들어있고, 몸에 좋아.
- 後輩 : でも, 食(た)べきれませんよ?  
후배 : 하지만, 다 못 먹어요.

- <More Tips>**
- 疲(つか)れる : 피곤하다
  - 食(た)べきれる : 다 먹을 수 있다

# 제127·128회 임시회 개최 및 의사일정



제127회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가 지난 7월 19일(월)14:30 개최되었다. 이날 처리한 안건은 2002년 7월 23일 구성된 인천광역시중구관광 및 해양개발실태조사특별위원회가 2004년 7월 22일로 2년간의 활동기간을 끝으로 그동안 추진한 활동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제9차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중구관광 및 해양개발실태조사결과보고서를 『원안가결』처리하였다.

◆ 제128회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가 9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일시	본회의	예결특위	비고
9. 2(木)	제1차 본회의 (14:10) 1. 제128회인천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휴회결의		개회식 (14:00)
	제1차 예결특위 (14:30)	1. 간사선임의건 2.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 - 예산안 제안설명 - 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 동	
9. 3(金)	제2차 예결특위 (14:00)	(계속) - 총무국	
9. 4(土)	제3차 예결특위 (10:00)	(계속) - 사회산업국	
9. 5(日)		휴회	공휴일
9. 6(月)	제4차 예결특위 (14:00)	(계속) - 도시국	
9. 7(火)	제5차 예결특위 (14:00)	(계속) - 보건소, 영종유출장소 의회사무과 ※계수조정	
9. 8(水)	제2차 본회의 (11:00) 1. 2004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2. 기타 조례안 등		

※의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의정활동

### 제3회 중구청장배 배드민턴대회 참석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최무웅부회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지난 7월 17일(토) 10:00 신흥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 제3회 중구청장배 배드민턴대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선수 여러분들의 평소 연마한 기량을 정정당당하게 그리고 스포츠 정신에 입각하여 마음껏 실력을 발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 발대식 참석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김기성의장은 지난 7월 29일(목) 14:30 (舊)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개최한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 발대식에 참석 축하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사회가 물질 만능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한 사회 여건속에서 생업과 봉사라는 두 그루의 나무를 굳건히 지키시는 한국자유총연맹 회원님들을 높이 치하하고 본 행사를 통하여 더욱더 밝고 희망찬 중구로 거듭나기 위하여 봉사단원들의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 봉사단 발대식 참석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최무웅부회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지난 7월 23일(금) 14:00 중구청 회의실에서 개최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 봉사단 발대식』에 참석하여 축하를 통하여 소외된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며 오늘 본 행사를 통하여 맑고 사랑이 넘치는 중구가 되도록 새마을 회원 모두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제7회 용유 을왕리 해변축제 참석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장:김기성)의원 일동은 지난 7월 31일(토) 20:30 을왕리해수욕장 야외특설무대에서 개최한 제7회 용유 을왕리해변축회에 참석, 축하를 통하여 구민의 문화향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축제가 될 것이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지역문화 예술축제를 세계적인이 함께하는 전통문화 행사로 승화, 발전시켜 국제적인 축제로 정착시켜 줄 것을 당부하였다.

### 2004년 하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안내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사실을 일치시키고 주민등록전산장비 등을 정비하여 주민등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2004년 하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정리기간** : 8. 17(화) ~ 9. 25(토) 40일간
- **중점정리사항**
  - 거주지변동 후 주민등록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정리
  - 화상자료 미입력자 등 새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정리
  - 주민등록표 기재사항 누락, 변경 및 오류 등 정리
  -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정리 등

#### ■ 자진신고

주민등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1/2까지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전화** : 인천광역시 중구청 민원지적과 (☎ 760-7274) 및 각 동사무소

### 도보관광(탐방)코스 운영

저희 중구에서는 10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인천 차이나타운과 개항기 세계열강의 각축장이었던 각국 조계지,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공원인 자유공원을 비롯한 다양한 건축 양식의 근대건축물지역 등을 문화유산해설사의 해설과 함께 걸으면서 체험해 보는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탐방 후 추첨을 통하여 문화상품권, 문구류, 중국 요리 무료쿠폰 등 푸짐한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와 신청바랍니다.

#### ■ 주요코스

- [인천역] ⇨ 패루 ⇨ 차이나타운(북성동사무소, 스카이힐) ⇨ 자유공원 ⇨ 청·일 조계지 경계계단 ⇨ 舊 일본영사관(現 중구청) ⇨ 제58은행(現 중구요식업조합) 제18은행 ⇨ 제1은행(現 월미관광특구 홍보관) ⇨ 舊 청국영사관(現 화교중산중학교) ⇨ 공화춘 [인천역]

#### ■ 세부사항

- 운영기간 : 9.11~10.16
- 운영방법 : 일반, 학생 기수별 구분 안내 / 20명당 1명의 해설사 동행
- 운영시기 : 매주 토요일, 총5회
- 안내시간 : 14:30~16:30
- 소요시간 : 2시간
- 신청방법 : 관공희망일 1주일 전 예약 (확정사항은 전화로 별도 통보)
  -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incheon.kr)
  - 관광개발과 관광진흥팀(☎ 032-760-7553)

#### ■ 기수별 운영일정(9. 25은 추석연휴로 제외)

- 1기 : 9.11 / 14:30~16:30 / 학생
- 2기 : 9.18 / 14:30~16:30 / 일반·학생
- 3기 : 10.2 / 14:30~16:30 / 학생
- 4기 : 10.9 / 14:30~16:30 / 일반·학생
- 5기 : 10.16 / 14:30~16:30 / 학생

### 동인천동 주민자치센터 수지침교실 운영 안내

- **모집기간** : 8. 23 ~ 9. 7
- **접수장소** : 동인천동사무소
- **구비서류** : 참가신청서 (동사무소 비치), 신분증
- **운영기간** : 9. 10(금) ~ 11. 26(금) [총12회] (매주 금요일 14:00~16:00 (2시간))
- **운영장소** : 동인천동사무소 2층 (자치센터 다목적홀)
- **수강인원** : 20명내외
- **지도강사** : 최정열 (※강의에 소용될 '수지침' 등 구입비용은 본인부담임.)
- **문의전화** : ☎ 772-2124, 764-4460 담당자 : 김상중

### 제23회 인천광역시문화상 시상 공고

- **시상구분** : 문학, 미술, 공연예술, 체육, 언론 5개부문
- **시상내역** : 인천광역시상 상패 및 상금 각 300만원 범위내
- **수상후보자 추천 접수기간**
  - 접수기간 : 9. 10 ~ 16(7일간)
  - 접수처 :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
  - 접수방법 : 방문제출, 우편접수
- **문의** : 인천시문화예술과 (☎ 440-3243) / 중구청문화공보실 (☎ 760-7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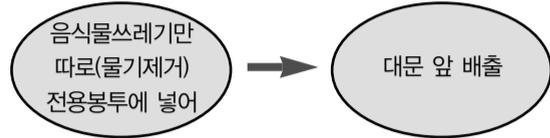
### 10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배출방법이 변경됩니다

####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를 사용해 주세요!

- **동별 배출요일**
  - 일요일, 화요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 신포동, 동인천동, 북성동, 송월동
  -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 연안동, 신흥동, 도원동, 율목동

#### ■ 음식물쓰레기 이렇게 배출해 주세요!

- 단독주택단지 및 소형음식점



- 공동주택(경비원 또는 관리자가 있어야 됨)  
: 음식물 쓰레기 중간수거 용기에 배출 → 종전과 동일  
※ 수거처리 비용은 아파트 관리비에 청구됩니다.

####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가격 (단위 : 1매 / 원)

- 2ℓ : 70 / 3ℓ : 100 / 5ℓ : 160 / 10ℓ : 310 / 20ℓ : 620

#### ■ 음식물쓰레기를 버릴때에는 꼭 따서! 버리면 자원화에 도움이 됩니다

- 이물질은 철저히 제거해 주세요!
  - 비닐, 이쑤시개, 금속류
  - 갈비뼈, 조개류, 옥수수대, 폐식용류 등은 생활폐기물 봉투에 배출합니다.
- 물기를 충분히 빼주시고요! 채, 망사, 배출용기를 이용합니다.
- 길이가 긴 채소류와 덩어리가 큰 수박 등은 잘게 썰어서 배출해 주시면 땡큐!!

### 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 **과세기준일** : 8. 1
- **납 기** : 8. 16 ~ 31
- **납세의무자 및 세액**
  - 개인균등할 : 우리 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4,500원)
  - 개인사업장할 : 우리 구 관내에 사무소, 사업소를 둔 개인(50,000원)
  - 법인균등할 : 우리 구 관내에 사무소, 사업소를 둔 법인(50,000 ~ 500,000원)
- **납 부 장 소** : 인천시내 시중 은행, 새마을금고, 농협, 우체국
- **문의처** : 세무과 시세팀 (☎ 760-7243)
- **기타**
  - 고지서를 받지 못하셨거나 분실, 훼손하신 분께서는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를 체납하실 경우 납기 후 5%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본세 30만원이상 체납 세에 대해서는 매월 1.2%씩의 가산금이 60개월 동안 추가로 가산 됩니다.
-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납부 (www.giro.or.kr)**
- **한미은행 인터넷뱅킹 납부 (www.goodbank.com)** : 계좌이체, 한미 비자카드납부

### 지역주민 정보화교육 안내

- **모집기간** : 교육시작 1주일전까지 수시접수
- **모집대상** : 중구관내 지역주민
- **모집인원** : 6회 120명 (1회 20명)
- **신청방법** : 선착순 전화접수 (☎ 760-7090, 7094)  
인터넷 접수 http://www.junggu.incheon.kr
- **교육장소** : 중구청 전산교육장(서별관 3층)
- **교육일정**

기 간	대 상	교육과정	교육시간	비 고
8.30 ~ 9.3	노 인	컴퓨터기초(윈도우, 인터넷)	10:00 ~ 13:00	55세이상
8.30 ~ 9.3	지역주민	컴퓨터기초(윈도우, 인터넷)	14:00 ~ 17:00	
9.6 ~ 9.10	지역주민	컴퓨터기초(윈도우, 인터넷)	10:00 ~ 13:00	
9.6 ~ 9.10	지역주민	한글2002	14:00 ~ 17:00	
9.13 ~ 9.17	지역주민	엑셀2000	10:00 ~ 13:00	
9.13 ~ 9.17	지역주민	홈페이지만들기	14:00 ~ 17:00	

※ 위 교육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을학기 신입생 모집

- **교육과정** : 초·중·고등과정 각각 1년 수료
- **모집인원** : 남녀〇〇명
- **모집마감** : 9. 25.한(선착순)
- **수업시간** : 월~금(저녁6시~9시)
- **모집특전** : 입학금 및 수업료전액 무료
- **모 집 처** : 인향초중고등학교(☎ 772-4061)

### ▽ 자동차등록업무 시행 안내

2004년 9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 전 군·구에서 자동차등록업무를 시행합니다. 자동차등록업무는 인천광역시내 어느 군·구에서나 가능하므로 아래 시행일 이후부터는 민원인께서 편리한 곳을 방문하시어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등록업무 시행시기**
  - 강화군,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기존 시행
  - 중구, 동구 : 8. 1부터 시행
  - 옹진군, 남구, 연수구 : 9. 1부터 시행
- **주요 업무내용**
  - 자동차등록(신규, 변경, 이전, 압류, 말소, 저당권)
  -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 자동차검사 및 점검
  - 자동차등록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이륜자동차 등록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열람신청의 처리
- **문의** : 중구청 교통행정과 (☎ 760-7675)

### ▽ 인천공항고속도로 북인천영업소통과 지역주민차량

- 2004. 8. 1일부터 통행료 추가감면 시행 -

- **통행료 추가감면**
  - 일반시민 : 서울 6,400원, 북인천 3,100원
  - 지역주민 : 서울 3,300원, 북인천 무료
- **감면대상 차량 및 기준**
  - 감면시행기간 : 2004. 8. 1. 00시 ~ 2007. 3. 31. 24시
  - 감면대상 : 지역주민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 중 구 : 영종/용유/운서동(영종도, 용유도, 무의도, 잠진도, 실미도)
    - 옹진군 : 북도면(장봉도, 신도, 시도, 모도)
  - 감면차량 : 신공항하이웨이(주)로부터 감면대상차량임을 증명하는 감면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북인천영업소를 통과하는 지역주민 소유차량
    - 타지역 주민 소유차량 제외(인척관계 등 불인정)
    - 법인소유, 사업용 및 렌탈 차량 제외(차량등록증 확인)
  - 대상차종
    - 경차 : 배기량 800cc미만 차량
    - 소형 : 승용차, 2.5톤미만 화물차 및 16인승이하 승합차중 2축 차량으로 율폭 279.4mm이하 차량
  - 감면기준
    - 감면횟수 : 감면대상차량 1대당 1일 왕복 1회(편도 2회, 0시~24시 기준)
      - ※감면횟수를 초과한 차량에 대하여는 정상요금 징수
    - 차량관리 : 감면차량 1대에 4인까지 등록 가능(주민등록상 가족 구성원 한정) 세대당 2대까지 등록 가능(별개의 감면카드 발급)

### ▽ 환경을 지켜주시는 분들에게 신고포상금을 드립니다

-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우리의 환경을 지키고 회복시키는 지름길입니다.**
    - 우리 모두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연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 환경오염행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 이제 시민 여러분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 **환경훼손 행위를 발견하시면 꼭 신고해 주십시오. 신고포상금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 폐수 무단방류행위,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시에는 최고 100만원까지, 경미한 신고도 홍보차원에서 문화상품권 또는 도서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신고방법 및 요령**
    - 신고방법
      - 일반전화 : 국번없이 128
      - 경인지방환경청 유해물질관리과(032-4501-311)
      - 시·도·시·군·구청 민원실, 국립공원관리사무소
      - 기 타 : 인터넷, 엽서, 편지, 직접방문 등
    - 신고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훼손행위를 했는지 가능한 자세히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으로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거나 무단 투기하는 경우에는 차량 번호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오염 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 폐수 무단방류 등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는 행위 : 10만원~100만원
    - 사업장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불법매립하는 행위 : 10만원~100만원
    - 한란·나도풍란 등 멸종위기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 : 10만원~100만원
    - 고무·합성수지 등 악취물질을 노천에서 소각하는 행위 : 25만원~20만원
- 환경훼손 행위 신고는 우리의 환경과 시민의식을 회복시키는 지름길입니다

### ▽ 7월부터 민원서류 배달(이송)제를 시행

- **시행시기** : 7. 23 ~
- **기관별 대상민원**
  - <제증명 민원>
    - 경제자유구역청(민원실) : 건축물관리대장, 지방세 완납증명 등
    - 중구청(민원실)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공시지가확인원 등
    - 영종·용유사무소 : 지방세완납증명, 농지원부발급 등 모두 FAX 민원 접수·처리 가능합니다.
  - <인·허가 민원>
    - 경제자유구역청(해당과) : 토지거래계약허가, 농지전용신고, 건축허가, 건축물철거·멸실신고, 용도변경신고,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농지전용신고 폐기물처리업 허가,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등
    - 중구청(해당과) : 농지전용허가, 토지소유자정리신청, 토지이동신청(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오수정화조시설 설치·신고 등
    - 영종·용유사무소 : 부동산검인 계약, 건축신고, 임목벌채신고,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폐기물처리 신고, 오수정화조·단독정화조 준공검사 신청 등

### ▽ 장애인 도서 택배서비스 이용 안내

- **실시시기** : 9. 1부터
- **대 상** : 중구 주민(영종도를 포함한 도서지역 제외)으로서 장애 3급 이상이며, 관외대출회원으로 가입신청한 자
- **신청방법**
  - 전화신청(☎ 764-9931, 440-6612)
    - 도서관 이용시간(오전 9시~오후 6시까지)에 가능
  - 9월 중순 이후부터는 도서관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 **대출도서** : 배가중인(미대출) 도서로서, 참고도서 등 관외대출이 제한된 도서는 제외
- **대출기간 및 권 수** : 1회 5권 14일간(1회 7일간 연기가능)
- **도서배달 및 반납** : 직원 직접 배달 및 회수(매주 화·목요일 오후)
  - ※ 회원 가입 신청, 열람 희망 도서 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립도서관(☎ 764-9931, 440-6612)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 ▽ 건설기능인력양성 무료교육생 모집

- **교육안내**
  - 교육기간 : 9. 6 ~ 11. 3(8주)
  - 교육시간 : 200시간(야간, 일일 5시간, 주 5일)
  - 교육직종 : 특수(알콘)용접
  - 교육인원 : 30명
  - 교육주최 : 인천광역시
  - 위탁교육기관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인천직업전문학교
- **모집안내**
  - 접수기간 : 8. 16(월) ~ 9. 3(금)
  - 신청대상 : 인천시민
  - 교육생 선발 : 선착순 접수 및 면접
  - 접수 및 문의
    - 인천직업전문학교 산학협력부(☎ 450-0315~6, 0320)
    - 인천광역시청 산업노사지원과(☎ 440-3843~5), 군·구청 경제과
- **교육특전**
  - 교육훈련비 무료, 교육수당 지급
  - 수료증 발급 및 관련업체 적극 취업알선

### ▽ 위조상품을 추방합시다

- **위조상품이란** : 위조상품이란 타인의 상표를 도용하여 진품인 양 생산, 판매되는 가짜 상품을 말합니다.
- **식별요령**
  - 위조상품은 외관상 진품에 비하여 품질이 떨어지고 디자인, 컬러 등이 다소 조잡함.
  - 시계의 경우 뒷면에 고유번호가 없거나, 가방의 경우 바느질이 일정치 않으며, 본드 냄새가 심하고 가죽이 부드럽지 않음
  - 상표가 진품과 동일한 경우도 있으나, 철자를 틀리게 하거나 상표를 교묘하게 변형시킨 경우도 있음
  -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유명상표는 면세백화점과 상표권자나 사용권자의 직매장 또는 대리점을 통하여 판매함
- **문의** : 중구청 산업경제과 (☎ 760-7372 FAX 760-7369)



### 볼링교실

지난 7월26일 중구소재 크라운볼링장에서 이광목부구청장을 비롯한 볼링교실 참가신청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4 볼링생활체육교실 개강식'을 가졌다.



###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보고회

지난 7월30일 이광목부구청장 주재로 세외수입담당팀장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의약정간담회

지난 7월29일 북성동소재 공화춘에서 김홍섭중구청장, 의약단체회장단 및 임원 등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약정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사랑의 집 고쳐주기 봉사단 발대식

지난 7월23일 구청회의실에서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 IN스틸 다물단 등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집 고쳐주기 봉사단 발대식'을 가졌다.



### 함상공원 견학

중구는 청소년들의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중구 관내에 거주하는 초·중 학생 224명을 모집하여 지난 8월10일과 12일 2일간에 걸쳐 중남 당진군 소재 삼교호 함상공원에서 군함견학과 서해관광농원에서 자연체험활동을 개최하였다.

### \*인플루엔자(유행성독감) 무료 예방접종 안내

- **접종기간** : 10. 4 ~ 12. 31
  -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동별로 나누어 접종합니다.
  - 그 기간에 못 오시는 분들은 10월 21일 이후에 접종 가능 합니다.
  - 10월4일(월) : 신포동 • 10월5일(화) : 연안동 • 10월6일(수) : 연안동
  - 10월7일(목) : 신흥동 • 10월8일(금) : 신흥동 • 10월11일(월) : 도원동
  - 10월12일(화) : 울목동 • 10월13일(수) : 동인천동 • 10월14일(목) : 북성동
  - 10월15일(금) : 송월동 • 10월18~19일(월·화) : 영종동
  - 10월20일(수) : 용유동
- **무료접종대상(중구관내 거주자)**
  - 만65세 이상 노인
  - 생활보호대상자(의료급여1종, 2종)
- **접종시 지침** : 신분증, 의료보험카드 ※보건소에서 유료접종은 하지 않습니다
- **문의전화** : 중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772-4001(교환104, 120))

### \*치매진단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 **대 상** : 만65세이상 노인 및 검사를 희망하는 사람 ■ **기 간** : 연중
- **내 용**
  - 치매가 의심되는 대상자에게 정확한 치매 진단을 실시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치매간이검사 및 CDR
  - 정밀검사 의뢰 : 치매 의심자에 한하여 X선 촬영 및 CT검사
  - 치매용품 제공
  - 치매팔찌 제공(가정을 떠나 배회할 우려가 있는 치매노인)
- **문의** : 중구보건소 담당자 조은행 (☎ 760-7660)

###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 **일 시** : 9. 16(목) 13:00~18:00
- **장 소** : 파라다이스 호텔(구 올림포스호텔)
- **대 상** : 인천시에 거주하는 모유수유아로 만5,6,7개월의 건강한 아기 (2004. 2. 17 ~ 2004. 4. 16 사이의 출생아)
- **참가신청기간** : 8. 16 ~ 8. 28(우체국 소인 인성)
- **시상내역(참가아중 22명)**
  - 대상 1명 : 금 7돈 • 최우수상 3명 : 금 5돈
  - 우수상 6명 : 금 2돈 • 장려상 12명 : 금 1돈
  - (※상황에 따라 상 명칭 및 시상내역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접수 및 문의** : 중구보건소 (☎ 760-7660 ~2)

## PPA성분 함유 감기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



PPA(페닐프로판올아민)는 교감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로서 비충혈 제거작용이 뛰어나 지난 50여년 전부터 최근까지 많은 나라에서 주로 코감기약으로 사용해 온 성분입니다.

금번 식품의약품안전청의 PPA성분 함유 감기약의 사용 중지 조치는

- 동 성분 감기약과 출혈성 뇌졸중 발생 위험성 간 국내 연구결과를 근거로 한 것으로서, 비록 단정적인 결과는 아니나 그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슈도에페드린' 등 대체 성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동 성분을 계속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 미국에서는 2000년 말 사용중지한 바 있고, 일본은 올해 2월말까지 PPA를 슈도 에페드린으로 처방을 변경토록 지시하면서도 시중 유통품에 대한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PPA함유 감기약을 복용하셨던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PPA성분은 **복용 후 몸에 축적되지 않고 바로 배설되기 때문에 과거에 수시로 복용하였다 하더라도 5일정도가 경과한 후에는 사실상 영향이 없으며 따라서 감기약의 복용 당시 문제가 없었다면 현재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아울러, 대부분 제약업소에서는 이미 4년전부터 자체 판단에 따라 대체 성분을 사용한 코감기약을 제조·판매하여 왔으므로 금번의 사용중지 조치로 인하여 시중에서 필요한 감기약을 사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무료 국가암』검진 실시 안내

- **대 상**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30%에 해당하는 짝수년도 출생자
- **검진항목**
  - 위 암 : 만 40세 이상 남, 녀
  - 유방암 : 만 40세 이상 여성
  - 간 암 : 만 40세 이상 남·녀로 B형간염, C형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질환자와 기타 간경변 등 간암 발생 고위험인 경우
  - 대장암 : 만 50세 이상 남·녀
- **검진기관 방문시 지침** : 신분증(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등)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내드린 건강검진 표지
- **검진기관**
  - 인천기독병원 (☎ 762-7831 건강검진센터에 예약후 검진)
  - 인하대병원 (☎ 890-3331 건강검진센터에 예약후 검진)
  - 동인메디칼의원 (☎ 772-7550)
  - 한국건강관리협회 (☎ 884-7131)
- **문 의** : 인천광역시중구보건소 백순열 (☎ 772-4001, ARS 134번)

### \*『무료 금연침』시술 안내

- **기 간** : 4월~ 12. 31
- **일 시** : 매주 월, 화, 목, 금(13:00~17:00)(공휴일은 제외)
- **대 상** : 중구 주민 흡연자 중 금연을 하시고자 하는분
- **장 소** : 중구보건소 한방진료실(지하층)
- **문 의** : 인천광역시중구보건소 백순열 (☎ 772-4001, ARS 134번)

### \*당뇨교실·고혈압교실 수강생 모집

- **장 소** : 노인복지회관 2층 소강당
- **대상자** : 당뇨 및 고혈압 환자, 환자 가족 및 기타 관심 있는 모든 주민
- **교육비** : 무 료
- **수강신청** : 수시접수(당일접수 가능)
- **문 의** : 중구보건소 통합보건실 (☎760-7662, 772-4001(교환105))
- **일정표**

구 분	프로그램 일정	교육내용	건강검사
당뇨교실	9.6(1주) 오후 2시~4시	당뇨의 이해	- 총콜레스테롤 - 간기능검사 - 혈당 검사
	9.13(2주) 오후 2시~4시	식이요법	
	9.20(3주) 오후 2시~4시	당뇨와 약물관리	
	10.4(4주) 오후 2시~4시	당뇨와 운동	
고혈압교실	10.11(1주) 오후 2시~4시	고혈압의 이해	- 혈압검사
	10.18(2주) 오후 2시~4시	식이요법	
	10.25(3주) 오후 2시~4시	고혈압과 약물관리	
	11.1(4주) 오후 2시~4시	스트레스 관리	

### \*9월 인천의료원 무료검진 안내

- **검진명 및 검진기관**

검진과	검진명	검진항목	검진기간	진료시간
안 과	백내장검사	세극등 검사	8.30 ~ 9.3	월·수·금 오전 08:30 ~11:00 화·목 오후 13:00~16:30
정형외과2	골다공증	방사선검사 골밀도검사	9.1 ~ 7	수~화 08:30 ~ 16:30 토요일 08:00 ~12:00
비뇨기과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특이항원 소변검사	9.13 ~ 17	월~금 08:30~16:30
백내장	눈의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질환. 시력장애			
골다공증	뼈의 화학적 조성에는 이상이 없고 단위용적당 골질량이 감소된 상태. 뼈 전체에서 골수강 등의 빈 부분을 제외한 뼈의 절대량이 감소된 상태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뼈가 정밀성을 잃고 거칠어진 상태이다.			
전립선 비대증	노령화와 함께 전립선이 비대해져 배뇨장애를 일으키는 남성의 질환.			

- **문의전화**
  - 안 과 : 580 - 6186
  - 정형외과2 : 580 - 6085
  - 비뇨기과 : 580 - 6073
  - 총무인사팀 : 580 -6651~5, 6478
- ※단, 정형외과 무료검진 평일(오전:15명, 오후:25명)은 선착순으로 접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4년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희망자 모집안내

- 접수기간 : 9. 6~13(6일간) - 토·일요일 제외
- 접수장소 : 주소지 동사무소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만18세이상 60세이하의 실업자 또는 정기적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한 자
- 구비서류 : 신청서, 의료보험증, 구직등록확인서, 자격증(신청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휴학증명서(휴학생인 경우), 전·월세계약서(전·월세 신청자일 경우)
- 선발 예정인원 : 00명
- 대상사업 : 정보화 및 일반노무사업
- 사업기간 : 10. 4~12. 24
- 임금 : 1일 24,000원~27,000원
- 교통비 및 간식비 : 1일 3,000원~5,000원
- 문의처 : 중구 산업경제과 (☎ 760-7366)



## 중구 사랑운동을 시작합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중구! 삶의 멋과 정이 넘치는 중구!  
언제나 함께하고 싶은 중구! 건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행정분야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  
➔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각 중 사회진흥 사업 추진  
➔ 선진문화의식, 애향심 고취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중구에 살고 싶어하는  
중구사랑운동으로 승화

추진사업내용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1. 청소·환경분야 8개사업 2. 도시경관 개선분야 4개사업 3. 300만 그루 나무심기 분야 4개사업 4. 주차관리분야 4개사업
선진문화 의식 및 애향심 고취	1. 우리동네 가꾸기 운동 2.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
중구주소 갖기 운동	1. 사업체(오피스텔) 전수조사 및 전입 독려 (☎ 청장서한문제작(8. 20) [자치행정과] (☎ 장방문 전수조사(8. 23~9.11) [동] (☎ 민홍보 및 전입독려(9.16~지속추진)[동]) 2. 전입자·출생자 인센티브제 (☎ 입자 : 기념품 지급(민원지적과, 동) (☎ 생자 : 유아용품 등 출생기념품 지급(민원지적과, 동)

## 정치인 등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 대상 :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
- 상시제한내용 주요내용
  - 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
  - 입당의 대가로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
  - 야유회·관광모임·체육대회·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에서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
  - 관혼상제식 기타 경조사에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
  - 주례를 서는 행위 등
- 위반행위시 처벌
  - 일반 유권자가 정치인 등으로부터 위의 내용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상시 부과함 (단, 주례의 경우 과태료 200만원)

###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1588-3939, 763-6646

## 제13회 구민상 추천안내

10월2일 제 13회 구민의날을 맞이하여  
각 분야에서 희생적인 봉사활동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공헌하였거나 지역 사회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구민을 발굴하여 영예로운 구민상을 수여코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 수상부문 및 인원 : 5개부문 7명 이내
  - 사회봉사상, 효행상, 산업진흥상, 체육진흥상, 교육문화예술상
- 자격요건
  - 2004년 7월말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구민 (단 산업진흥상과 교육문화예술상은 관내에서 활동실적이 있는 자)
  - 시상부문별 공적내용이 현저한 자(구민)
- 추천권자
  - 동장, 관내 기관장 및 단체장
  - 관내 거주하는 20세이상 구민 50명이상의 연명
- 추천서 접수
  - 접수기간 : 8. 18(월) ~ 9. 4(토) / 16일간
  - 접수처 :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행정과
  - 접수방법 : 인편 또는 우편접수
- 시상
  - 일시 : 10. 2(토)
  - 장소 : 제13회 구민의날 기념식장
  - 부상 : 상패 및 순금메달
- 문의 : 중구 자치행정과 (☎ 760-7150)

